



5면

수소저장용기 시험평가 본격가동

전주매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음 1월 8일) 제39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10조 '통큰 투자' 추진

정부·도·새만금청 등과 협약준비중... AI·수소·로봇 등 거점 활용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산업 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23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등은 이번 주 새만금에 공동 투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에서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원을 투입하

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이다.

서해안에 위치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도 새만금을 AI 데이터센터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은 면적은 409㎢(1만2,372경)로 여의도의 약 140배에 달한다. 서해안에 위치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전력을 공급받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로부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5만장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전해 설비를 통해 수소에너지 능

력도 확보한다. 현대차는 앞서 전북도와 수전해를 통한 정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새만금에 수소 거점이 세워지면, 인접한 현대차 전주 공장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전주공장에 세계 최초의 수소상용차 양산 시스템과 국내 첫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으며,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 기버스를 보급하는 등 전북자치도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신·김민호 기자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환영”

민주 이원택 의원,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 발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문신·김제·부안)은 23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번 투자로 인해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했다.



산시설 태양광 발전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산지소'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서남권 신사업 거점 구축 움직임과 관련, 전북의 총력 대응과 선제적 투자 유치 전략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며 “사업이 현실화되면 새만금이 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메카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대차그룹의 투자 움직임은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전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산업 전환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며 “전북 산업구조를 제조 중심에서 AI·에너지·로봇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역사

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은 속도와 실행력으로 화답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 학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총력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북은 △전력 인프라 선제 확충 △인허가 패스트트랙 구축 △전주공강 - 새만금 수소 밸류체인 설계를 중심으로 투자 실행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나아가 ‘새만금 = 국가 AI·그린에너지 허브’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새만금 중심의 서남권 산업 벨트 구축 청사진도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도를 새로 그리고 도민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희성 기자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국민연금공단·KB금융그룹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1번지 전북’ 공동 도약 선언

도·국민연금·KB금융,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3자 협약
금융 거점 조성부터 기후테크 펀드까지 협력... 균형발전 모델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이 손을 맞잡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북이 국내 금융중심지 선봉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이 지난 1월 발표한 전북 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민·관·공이 원팀을 구성해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북 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에 역할을 분담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맡고, 국민연금공단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KB금융은 KB증권·KB자산운용 등 핵심 계열사를 집결시켜 당초 250명에서 확대된 약 380명을 혁신도시에 배치할 계획이며, 전주 지역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530명 규모로 늘어난다.

금융타운에는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손해보험 스마트광역센터, KB국민은행 전문 상담조직원 센터(링크)에 더해 KB희망금융센터와 KB Innovation HUB 센터가 추가로 들

어설 예정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조력을 배치해 전북혁신도시를 미래형 자산관리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 운영, 스타트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Innovation HUB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 지점 도입 등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협력한다.

협력 범위는 금융 인프라 조성을 넘어 국제 교류와 인재 양성, 지역 상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3년간 총 3억 원을 투입해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기관 참여와 청년 모의투자대회도 병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어지는 금융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연구관리학과와 연계한 'NCS 오픈캠퍼스' 현장 실습 및 장학금 지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촌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연금으로 환원하는 마을자치연금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고, 전북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1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추진 중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점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기업의 투자와 전문 인력 상주를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의 실체를 갖추고, 국내외 금융기관 추가 유치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선 민간 주도 지역발전 시대로 평가되며,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KB금융타운 조성은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은 금융생태계를 강화하고 자산운용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금융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성장 기회가 절실한 중소기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사회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 소중한 협력의 씨앗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전북 금융산업이 자산운용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도, 내달 15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소·염소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일정을 앞당겨 이달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만

552농가 54만1,000마리이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이만호 기자

제 24회 3/6 금, 3/7 토, 3/8 일
완주삼레딸기대축제
삼레농협 뒤 공영주차장

주최·주관 완주군 삼레농협 완주농협연합회 완주DMO 행사후원 농업경영연합회 오석대학교